

## 하나님을 당연시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영국 목회자들이 겪는 좌절감과 그 교훈)

- 장병두 목사 -

얼마 전 2주 정도 영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하워드 마셜 교수님이나,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각으로 있는 리처드 보캄 박사, LBC의 맥스 터너 교수님, 그리고 현재 목회와 신학에 기고중인 고든 웬함 같은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 교수들을 인터뷰하며, 영국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싱글레어 퍼거슨 목사님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 데릭 프라임 목사님 같은 분들을 취재하는 것이 영국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취재는 잘 마쳤지만, 2주간의 짧은 영국 체류 기간 동안 목격하게 된 영국 교회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코틀랜드 하면 장로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또 아직까지는 영국하면, 한국의 많은 신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기를 선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영국의 영적 실상은 전혀 그럴지를 못했습니다.

Professor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 교수들도, 또 성장하는 교회를 이끄는 복음주의 목사님들도 다 영국교회의 이 거대한 침체 분위기 앞에 압도되어 있었고, 그분들 중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은 절망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절망 때문에 영국의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 연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느낌은 '영국 목회자들이 영적 자신감(confidence)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교인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 중에 한 곳이 에딘버러였는데,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시내 곳곳에는 새문안 교회나 영락교회와 같은 큰 교회당 건물들이 그것도 사거리 곳곳마다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교회들이 현재 계속 문을 닫고 있었고,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존 스토틀의 후임으로 BST 시리즈를 편집 맡으며, 지금 영국교회성장협회 회장으로 있는 데릭 티드볼 박사는, 인터뷰 도중 영국에서는 지금도 매 주마다 2000명 이상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전 영국통계청장이 조사한 통계자료를 소개했습니다. 매달이 아니고 매 주 200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크기의 교회가 매주 열 교회씩 교인이 없어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이었는가 하면, 영국교회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려야 했고, 그 큰 교회당 건물이 비좁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였기 때문입니다. 한 영국인 목사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문앞에 서서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본당에 자리가 꽉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예배당 문을 닫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 서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찾아 뛰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 교회는 매주일 2000명씩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당을 팔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곳 중에 에딘버러 시내만 해도 그런 용도 변경된 교회를 수십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나 조명기구 파는 집으로 개조된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장으로, 어떤 교회는 대중 술집(Pub)으로 팔려 있었습니다. 한번은 '프랑켄 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개조된 교회당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본당과 이층은 술집 조명에 스탠드 바로 개조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강대상은 디제이 뮤직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댄스 교습소와 페스티벌 장소로 팔려 있었고, 음식점이나 유스 호스텔로 팔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가 아파트로 개조되어 팔리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린 교회들의 대부분은 교회당 건물 꼭대기에 세워져있던 십자가가 다 잘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잘린 수십개의 교회를 시내 한 복판에서 수시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찰스 스펀전과 존 웨슬레, 존 낙스와 로이드 존스가 목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영국 교회가 불과 그렇게 짧은 시일 안에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버딘과 에딘버러에서 교수사역을 한 신학계의 대부격인 앤드류 월즈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지적처럼, 이제는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30-40년 전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역사 있었고 무엇인가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일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왜 영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들 중에 한 스코티쉬 소장파 목사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자가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를 당연히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영국을 떠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겸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교회가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당 안에 찬송소리와 기도 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에 대해, 결코 당연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사람들이 교회로 줄을 서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로 몰려온 이유는 교회 안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현실 문제에 끊임없이 집중하며, 더 좋은 설교 듣기만을 원했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에 감각들을 점점 잃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급격히 외부 환경들이 바뀌고,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의 철학사조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자, 동일한 밀물 현상이 방향만 바꾸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 주셔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많은 사람중에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고 쌍둥이 형제중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만한 이유들을 찾을 수 없다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안에 말씀에 헌신한 신실한 목회자들과 또 말씀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 알고, 들나귀와 같은 우리의 기질과 고집스런 태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꺾이우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스런 교회에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